

문화도시 수원

제 10 호



Coffee-waste Career Club

커피 찌꺼기 퇴비 (Coffee grounds compost) / 곰팡이도 들고 (With mold) / 커피 찌꺼기 퇴비 (Coffee grounds compost) / 커피 찌꺼기 퇴비 (Coffee grounds compost)

반딧불이 (Firefly) / 박람회 (Fair) / 리어가 타고 (Riding a leech) / 꽃이 있어야 벌이 오고 (Flowers must be there for bees to come) / 가을에서 새까 (Autumn to new) / 겨울에서 새까 (Winter to new) / 미생물 살아있음 (Microbes are alive) / 자연이 알아서 키워줌 (Nature takes care of it) / 벌레가 있어야 새까 오고 (Insects must be there for new to come) / 가을정원 (Autumn garden) / 이곳과 저곳 (Here and there) / 행복동에 온 서수원 땅 (Happy-dong, the land of Seosuwon) / 죽어도 잊겨 (Even if I die, I won't be forgotten) / 빈 공간 (Empty space) / 비행기 소음을 듣고 자만 (Proud of hearing airplane noise) / 숙성한 시간 (Maturity time) / 물기 (Moisture)

실용공간 (Practical space) / 탄소! (Carbon!) / 살균실 (Sterilization room) / 밭 (Field) / 인산* (Phosphorus*)

기획
소음을 내리고
싱싱한 말을 트고 열자
멈추면 생동이다

머물수록
2022 수원공공예술 <멈추면 생동>
시끄러운 침묵과
풍부한 피난처를 주목하다

수원형 미술장터
협업으로 완성된 또 하나의 예술
수문장 아트페어

현장 속으로
문화도시의
내일을 여는 열쇠

소음을 내리고 싱싱한 말을 트고 열자 멈추면 생동이다

2022 수원공공예술프로젝트 <멈추면 생동> 전시를 둘러본 뒤에 느낀 생각 하나는 프로젝트팀이 짜 놓은 그물코가 다양한 말들의 무늬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의 무늬가 시민들에게 잘 타전될 수만 있다면 수원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으리라.

2022 수원공공예술프로젝트 <멈추면 생동> 프로젝트팀이 다룬 주제는 흔히 '수원비행장'으로 불리는 '제10전투비행단'의 이전문제다. 비행장에는 전투비행단 외에도 제27예비단, 미합중국 공군 미합중국 육군 제52방공포병연대도 주둔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일본군이 건설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54년에 관할권이 우리 공군으로 이양됐다.

짜 놓은 그물코가 타전하는 수원의 미래

비행장이 들어선 지 80여 년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언론에 따르면 비행단의 작은 사망사고를 비롯해 기지보안문제, 노후시설문제, 규모문제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이전을 결정하게 됐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장 주변에 사는 약 25만 명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소음문제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소음문제로 이미 2002년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그만큼 비행장의 소음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멈추면 생동'이라는 주제를 갖게 된 것은 프로젝트팀이 이곳을 사전 답사하면서 시끄러운 침묵과 풍부한 파란채로서의 현상과 장소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비행장은 서수원의 도시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큰 골칫거리지만 오히려 가능성이 큰 여유 공간을 남겨 뒀으로써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박찬국 예술감독은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공간과 개념, 방식을 구분 짓는 3개의 사이트 "ON/CLOUD/WITH site"를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개입하고 분석하며 질문할 수 있는 예술가·연구자·기술자·전문가·활동가를 그물로 엮었다. 사이트로 들어간 이들은 각자의 자율적 상상에 의해 조사하고, 연구하고, 활동하고, 교육하고, 기록하는 등 표현하고 발신했다. 그 결과물들이 전시를 구성하고 있었다.

기획

글 — 김종길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관장으로 있지만, 미술평론가로 오랫동안 비평 현장을 누볐고 최근에 다석철하리라는 직함이 하나 더 생겼다. '다석 류영모'처럼 유라시아의 횡단선을 가로지르는 철학하기가 다시 100년의 뒷하늘(後天을 여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실 수원비행장 이전 논의는 이렇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됐고, 수원시는 2014년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2015년 국방부가 제10전투비행단의 확장 이전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전할 장소가 나오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표류하는 장소는 도심에서 밀린 농동을 쌓았고, 시간을 좀 더 느리게 잡아줬다.

순수농지는 농업적 유산이자 자산이다

한편 수원시는 비행장 부지를 신도시로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청사진이 나와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비행장 부지가 이전하면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이 지역 전체에 재개발 붐을 일으켜 광교신도시보다 큰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렇게 되면 이 일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자산, 문화적 자산, 농업적 자산은 광그리 사라질 것이 뻔하다. 그곳은 비행장이 있어서 개발을 피해가고 있는 나름의 공유지가 아닌가.

정조가 화성(華城)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둔전을 만들었고 그 역사를 이어 농상공학교 농과를 세운 게 1904년이다. 이후 농림학교(1906), 수원농림전문학교(1918), 수원고등농림학교(1922), 후기 수원농림전문학교(1944), 서울대학교 농과대학(194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1992)으로 이어지면서 이 일대는 한국 농업의 메카가 됐다. 농림학교가 실험을 시작한 순수농지는 이곳밖에 남아 있지 않다. 수십 년 동안 농약을 써온 농지에서는 실험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순수농지마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순수농지는 갯벌만큼이나 중요한 농업적 유산이요, 자산이다.

함없는 장소들 들여다보다

1931년 YWCA 농촌사업부에서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샘골(현 안산시 상록구)로 파견돼온 최용신(1909~1935)은 농촌교육을 시작했다. 1934년 일본 고베신학교로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샘골에서 농촌계몽운동을 계속했으나 지병으로 작고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상록캠퍼스'라고 불렀던 것이나, '푸른 지대'라고 지금도 부르는 까닭은 그런 최용신의 '상록정산'을 잇기 위해서다. 탐동시민농장 한쪽에 아직도 '상록야학' 건물이 남아있다.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이곳에 푸른지대창작센터를 운영 중이다. 어쩌면 이러한 활동이야말로 상록정산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이다.

프로젝트팀은 비행장의 '이전 이슈'를 다루되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비행장이 그곳에 있으므로 인해서 80여 년간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낸 '함없는 장소(無爲之場)'를 들여다보는 방식을 택했다. 물리적 장소로서 비행장의 울타리 안이 아닌, 울타리 밖을 살피는 방식이다. 비행장 주변은 군 기지의 안보문제와 극심한 소음 때문에 그동안 개발이 지연됐다. 근처 롯데몰에서도 비행장을 볼 수 있으니 안보문제는 이제 큰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점점 더 땅들은 자본에 침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욕망이 꿈틀거릴 수 없는 '비어던 곳', '빈 곳', '빌 곳'이었다. '없고잡의 세계(常無欲之界)'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개발·재생·공유·관점의 이어서 사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은 그러므로 아주 적절한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함없는 장소'는 무얼 하고픈 마음이 일지 않는 장소. '없고잡의 세계'는 늘 하고픈이 없는 세계라는 뜻이다. 비행장이 그곳에 계속 있다고 가정해 보자. 사람들은 그 주변의 땅에 결코 큰 욕망을 심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지역은 누군가에 의해서 천천히 그 쓸모를 이어가는 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아무도 숲을 없애려 하지 않을 것이고, 순수농지로 남아있는 농토를 아파트로 채우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25만 명의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소음문제는 남게 될 것이다. 개발이 되지 않아 자꾸만 낙후되어 가는 주거시설의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착게 남아 있는 동네상권조차도 위태로울지 모른다.

비행장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는 생각보다 아름답고 불만하며, 긴 여운이 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에 '소음'을 내리고, 싱싱한 말을 트고 열자.

시간의 연대기가 지워지지 않고 남은 그곳

프로젝트팀이 고민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의견들을 생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닌 그 무엇이 정당이라고 결정하려는 게 아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어온 비행장 주변의 지역 생태계를 살피면서 그나마 재개발되지 않았으므로써 남게 된 공장지대를 본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더 멀리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비행장이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 주변에는 새들도 많이 찾아온다. 이미 소음에 익숙해진 동물들은 그 나름의 생태계를 형성해서 살고 있다. 재빠르게 신도시로 커져 버린 수원시의 '60~70년대' 뒷그림자 풍경도 이곳에는 남아있다.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연대기가 지워지지 않고 남은 것이다. "멈추면 생동이다"는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바로 이런 지점임을 시사한다. 잠시, 이슈를 내려놓고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언어를 갈무리했다. 전시장은 '생동의 언어들로 가득하다. 숲의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낡은 공장이 들어가는 소리, 곰팡이가 번지는 소리, 시간이 고여서 흔적을 보여주는 소리...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을 수 없고, 취어도 잠을 수 없는 소리도 있다. 비행장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는 생각보다 아름답고 불만하며, 긴 여운이 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에 '소음'을 내리고, 싱싱한 말을 트고 열자.

2022 수원공공예술 <멈추면 생동> 시끄러운 침묵과 풍부한 피난처를 주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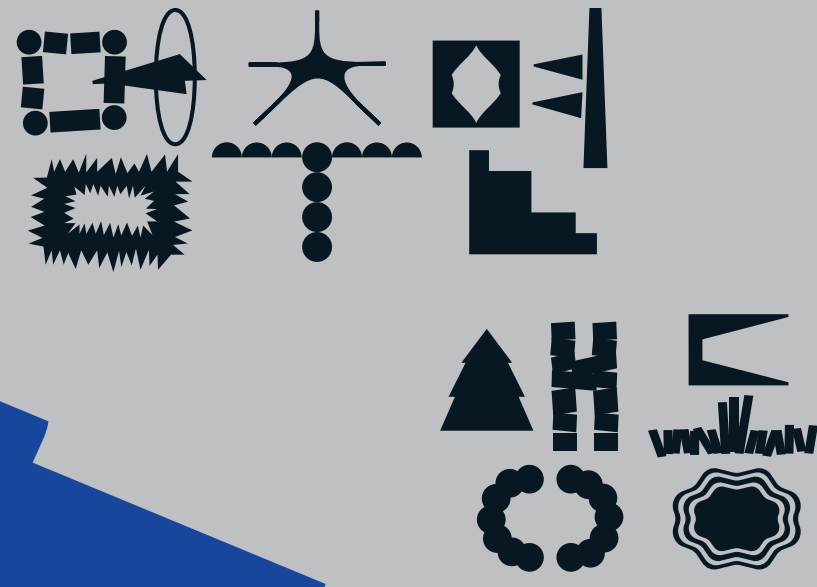
2022 수원공공예술 <멈추면 생동> '기록과 발신展'이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수원 탐동시민농장 푸른지대창작센터 전시장과 실험목장 AGIT 일대에서 펼쳐졌다. '시끄러운 침묵과 '풍부한 피난처'에 주목한 이번 프로젝트는 날것의 흥미로움과 풍부한 가능성 그리고 낯선 것들과 직면한 예술의 태도 공유에 심혈을 기울였다. 도시 곳곳의 비었던 곳, 빈 곳, 빌 곳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은 역설적으로 '멈추면 생동'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선사했다.

저기 CLOUD site

각각의 영역에서
연대하고 연결하는
창작자들의 활동

저기 CLOUD site — 무엇이 저항해야 할까

한편 기후, 기술, 생태·환경의 대변동 시대에 지정학적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전통 커뮤니티와 산업 붕괴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익숙했던 경계들이 무너지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관계를 세워야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그리고 또 무엇이 저항해야 할까? '저기(CLOUD site)'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제작·연구, 활동으로 다른 관점을 만들어 내며 연대하고 연결하는 창작자들의 활동을 담았다. '도시의 공동화'라는 주제로 수원비행장과 주변 지역을 조사한 권범철 "문화·과학" 편집위원은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마스터 플랜을 벗어나 도시에 다르게 개입하는 방안을 모색한 실험이었다"며 "도시에서 오로지 위치성으로만 소비되는 '땅'의 다른 의미, 우리가 그 땅과 관계 맺는 방식, 공동자원이어서 땅의 가능성을 살피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어떻게 공동의 장으로 바꾸어낼 수 있을지 탐구한 시간이었다"고 귀띔했다.



거기 WITH site — 연쇄적으로 우연히 교차하는 활동

마지막 '거기(WITH site)'에서는 비행기의 소음과 고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옛 서울농대 터와 서수원 일대에서 일어나는 아름답고 스펙타클한 삶의 장면들에 주목했다. 생활공간의 일상 실험지로서 도시, 장소, 공간은 어떤 의미와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를 관찰-탐구-연결-활동-대화-연대가 연쇄적으로 우연히 교차하는 활동들을 엮어냈다. 2018년부터 <통근생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김양우 크루는 'Air Flow Sound'를 통해 높고 강한 사운드에 가려져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사운드를 영상과 필드 레코딩, 스펙트럼 등을 활용해 시청각과 타임라인을 이용한 결과물로 소개했다.

수원공공예술 박찬국 예술감독은 "수원 공군비행장의 존재는 수원시 도시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의도치 않게 도심 가까이에 커다란 생태적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다"며 "덕분에 자연과 문화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해볼 수 있는 가능성과 상상력을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행장을 유지하거나 이전하는 논의는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도 그동안 시민들은 발전에 방해가 됐던 '비행안전구역'을 '도시생태문화 안전구역'으로 인식하며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며 "수원공공예술 '멈추면 생동' 프로젝트는 시민들과 함께 발견하고, 되묻고, 흥미롭게 연결한 예술적 태도 그 자체였다"고술했다. "더 좋은 '안전구역'이 어떤 것인지 행위 속 질문을 거듭해 보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여기 ON site

몰입한 과정과 태도를 기록·발신한
아카이브 전시



여기 ON site — 비워둔 채 쓰는 시간

이번 프로젝트는 공간과 개념, 방식을 구분 짓는 3개의 사이트, 즉 여기(ON site)·저기(CLOUD site)·거기(WITH site)로 운영됐다. 예술가·연구자·기술자·전문가·활동가 등 각계의 도시생활자들이 모여 조사와 연구·활동 및 교육·기록과 표현, 발신을 기반으로 한 개별 프로젝트들이 진행됐다. 특히 멈추면 생동 프로젝트에 참여한 크루들은 프로젝트의 이슈에 집중하며 몰입한 과정과 태도를 기록·발신한 아카이브 전시를 선보여 관람객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 먼저 '여기(ON site)'에서는 가정법을 전제로 세웠다. 비행장을 비운다고 가정하고 다른 용도로 쓰기 전에 '비워둔 채 쓰는 시간'을 더 길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그 시작이었다.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중심이 돼 스튜디오로 운영된 '여기(ON site)'에서는 이 시간 동안 늘어갈 1인 생활자, 노인, 청년, 여성, 이주민, 반려동·식물과 생활하는 사람들이 쓰는 공간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삶에 꼭 필요한 공간과 함께 공유해야 할 '그 무엇'을 주제적으로 그려나갔다. 프로젝트 '금지된 경계, 해방된 영역'으로 참가한 어반케렌시아의 장수아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대표는 "군사시설, 비행시설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갖는 수원비행장의 금지의 경계를 형성하고, 공간적 단절의 역사가 축적된 모습 그대로 살펴보고자 했다"며 "금지 혹은 단절이라는 것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선입견 없이 잠재된 가능성에 주목하고 도시적 영역과 경계로의 사유 지점들을 확장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대표는 "금지된 경계와 영역으로부터 도시적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비행장과 주변공간에 대한 관찰, 조사, 토론을 통한 시각의 확장에 몰두했다"고 밝혔다.



거기

WITH site

아름답고 스펙타클한
삶의 장면들에 주목



박지연 참여 작가와 기획그룹 '테이블 유머' 김소연 대표 (좌부터)

다섯 개의 기획그룹과 스물아홉 명의 청년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탄생한 '수문장 아트페어'가 '2022 인문도시주간'과 함께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장으로, 지역 콘텐츠의 판로를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모색한 출발점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수문장 아트페어로 얻은 기회와 도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유쾌한 기분을 전하는 것들이 있다. '테이블 유머'의 제품이 딱 그러하다. '밝고 건강한 기분을 선사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모토대로 테이블 유머의 제품을 보고 있으면 살면서 미소가 지어진다. 테이블 유머는 재치 있는 디자인에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을 선보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김소연 대표가 이끌어가고 있다. 그녀는 수문장 아트페어를 통해 작가들과 협업을 이루게 된 점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제품 기획과 개발, 디자인, 판매, 유통 등 전 작업을 혼자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작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소 작업을 하면서 작가들과의 협업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많았는데 수문장 아트페어가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창작 그림책을 만드는 박지연 작가에게 수문장 아트페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의 첫 창작 그림책 <초코가루를 사러 가는 길에>는 블로니아동전시장에서 선보어진 후 해외 여러 나라에서 발매했을 정도로 주목받았다. "올 초 수문장 아트페어 설명회를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아트페어에 관심이 많았고 수원에서 아트페어가 개최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림이라는 평범 작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수문장 아트페어를 통해 굿즈(Goods)를 제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 우리들의 추억

테이블 유머에는 박지연 작가를 포함해 네 명의 작가가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여름부터 전시회의 콘셉트를 논의하며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왔다. 협업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의 시너지.

작가들은 테이블 유머에 담긴 철학과 가치를, 김소연 대표는 작가들의 작품관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선행의 시간을 가졌다. "테이블 유머의 철학과 제 작품의 색깔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위로'라는 키워드를 도출했고, 테이블 유머의 도자기 머그컵에 주목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담아 마실 수 있는 도자기 머그컵이라면 제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따뜻한 감성을 녹여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김소연 대표는 작가들의 작품을 어떻게 하면 한 공간에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선보일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작가의 개성을 살리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전시 구성은 그녀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김소연 대표는 "그 과정에서 작가분들의 도움이 컸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요청사항에 빠르게 답해주시는 작가분들 덕분에 만족스러운 전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 한 분, 한 분의 작품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데요. 저를 포함한 다섯 사람의 순조로운 협업이 났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장르든 예술가는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지연 작가는 "다른 작가들과 작업을 함께하며 보낸 시간이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저도 작업실에 혼자 틀어박혀 작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경험이나 고충, 바람이나 꿈을 터놓으면서 작업을 하니 흥미로웠습니다. 비슷한 분야에 몸담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의지도 됐고요." 김소연 대표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보냈다. "작가분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포장해서 서울로 옮겨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구워내는 후반 작업을 해야 했어요. 수원에서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결국 작가분들과 다 함께 버스를 타고서 작품을 옮겼지요. 돌이켜 보면 그때는 우리 모두 '좋은 작품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수원형 미술장터

협업으로 완성된 또 하나의 예술 수문장 아트페어



수문장 아트페어의 발전을 기대하다

수문장 아트페어는 팔달구 신흥로의 옛 '이은아트' 건물에서 열렸다. 폐허처럼 방치되었던 공간은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김소연 대표는 그 점에서도 의미를 찾았다. "지금까지 잘 꾸며진 공간 부스에서 주로 전시했는데 수문장 아트페어는 전시 공간 자체에 제 손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이 완성됐을 때 감동을 받았거든요. 백화점이나 상점이 아닌 아트페어에서의 제품 판매는 예술가로서의 제 존재를 자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올해는 적은 인원으로 아트페어를 준비하느라 홍보와 부스 운영에 다소 아쉬웠지만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멋진 아트페어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연 대표의 말에 박지연 작가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또한 수문장아트페어의 성과와 발전에 대한 바통을 이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올해 진행되는 아트페어를 기반으로 제2회, 제3회 수문장 아트페어가 지속해서 열리길 바랍니다. 규모가 보다 커지고 참여 작가가 더 늘면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아트페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문장 아트페어를 통해 행동 동 일대에 건강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연 대표는 앞으로 글로벌 아트페어 참가를 시작으로 유럽 등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이블 유머는 잠재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서울여성공예센터의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선정돼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가졌다. 박지연 작가는 창작 그림책 작업을 지속하면서 안아주는 꿈을 테마로 한 '베어 허그'를 회화 작업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수문장 아트페어를 통해 맺어진 소중한 인연, "서로를 응원하겠다"는 이심전심이 이들의 가까운 미래를 벌써부터 기대케 한다.

현장 속으로

문화도시의 내일을 여는 열쇠

문화도시 수원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 행정가, 예술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지역예술인은 예술의 행위자이자 전파자로서 지역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도시 수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지역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도시 수원의 방향성을 짚고,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도시에서 지역예술인의 역할을 논하다

지난 10월 18일 수원문화재단 강당에서 수원예총협회 회원 등 지역예술인이 모인 가운데 '문화도시에서의 지역예술인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1차 포럼을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김찬동 전 수원시립미술관장은 문화도시 제도의 개요, 정부의 문화도시 정책 비전 및 목표를 예술인들과 공유하고, 문화도시 수원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했다. 수원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필두로 문화자원과 인문학적 기반이 풍부한 도시다. 뿐만 아니라 생태 및 환경문제는 물론 도시문화적 자원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기에 차별화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유리하다. 아울러 시민참여 문화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김찬동 전 수원시립미술관장은 "예술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미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술가들은 지역의 문화적 속성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기반으로 문화를 재창조하는 '도시 문화 콘텐츠의 생산자, 시민·애호가·아마추어 예술가·전문예술가·행정당국 간의 연계와 공조를 위한 '시민과 행정당국의 중재자, 문화도시 조성의 내용 및 과정을 예술인의 관점으로 비평할 수 있는 '문화도시 제도의 비평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창준 수원음악협회장은 대구와 광주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고려한 정책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끌어내는 지역예술가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예술인은 사회문화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자이자 촉매제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술인은 '문화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생산자', '문화시민단체의 문화 관련 서비스 제공자',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술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려면 세대별, 전문가·아마추어별, 장르별 등 지자체와 수원문화재단의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지역예술인에게 놓인 현 상황을 되짚다

발제 후에는 문인협회 정명희 지부장, 수원미술협회 윤현덕 사무국장, 연극협회 정운봉 지부장이 두 발제자와 함께하는 토론을 가졌다. 정명희 지부장은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예술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지역예술인들의 설 자리가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회의적"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윤현덕 사무국장은 "예술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요건이 뒷받침될 때 지역문화의 특성화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운봉 지부장은 "문화도시 내에서 연극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다"며 "예술인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화도시 수원을 바라본 지역예술가의 시선

한편 10월 21일에는 창릉마을창작센터에서 수원민예총협회 회원 등 지역예술인들이 모여 '예술가가 바라본 문화도시 수원'이라는 주제를 두고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올해 문화도시의 출발과 함께하게 될 지역예술가 단체의 바람과 방향성을 고민했다. 법정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한다'는 목표로 출발했다. 지역예술가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예술을 펼쳐나가는 활동가로서, 법정 문화도시 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뚜렷하다. 수원 문화위원회 정수자 고문, 시각예술위원회 이요연 인도레창작소 작가, 풍물국위원회 이성호 풍물굿패 삶터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문화위원회 정수자 고문은 "시민이 모두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법정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시민은 모두

시인이다와 같은 공모전이나 자서전 쓰기와 같이 시민들의 글쓰기와 삶의 기록화 작업이 수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확장해온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고문은 "지역의 문화 자료를 관리·보존·발굴할 뿐 아니라 시민의 문화적 놀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문학관이 중요하다"고 무게를 실었다.

지속가능하면서 고유함을 살리는 노력

시각예술위원회 이요연 작가는 지속가능한 지역예술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즉, 문화도시 추진에 있어 새로 시작하거나 발전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오래 진행해오던 기존 사업들을 어떻게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인도레창작소처럼 유희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을 추가해 지역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펼쳐나가는 방법을 제안했다. 풍물굿패 삶터를 이끄는 풍물국위원회 이성호 대표는 "기존 사업명에 문화도시라는 말만 붙여서는 안 되고 시민의 삶 자체가 문화예술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예술에 대해 소개했다. 실제로 수원에는 길마제 줄다리기, 수원장기, 수원드래, 화홍문당굿놀이 등의 다양한 전통문화



11.18(금) - 11.20(일)

복합문화공간 111CM

10월

2022

2022 북수원

문화공감:

111CM 결의, 우리

북수원 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문화로 소통하는 커뮤니티의 장
#전시 #공연 #워크숍 #강연 #체험





독자의견



이유진 햇살 좋은 가을의 어느 날 경기상상캠퍼스를 산책하던 중 <월간 문화도시 수원> 매거진이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2022 수원공공예술 <멈추면 생동>'이라는 행사를 알게 됐고 곧바로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비행장' 이슈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재생, 공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관점이 좀 낯설었지만 실험적인 프로젝트라 꽤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족이 살고 숨쉬는 수원의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월간 문화도시 수원을 보신 소감, 응원의 메시지를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이야기는 월간 문화도시 수원에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등 소정의 사례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monthlswcc@gmail.com
내용 독자후기 한마디, 성함, 사시는 곳(OO구 OO동), 휴대폰 번호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월간 문화도시 수원 발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필자의 글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